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리스크-온’, S&P500 사상 처음 7,700 돌파

- 미국증시 다우 • S&P500 지수 ‘사상 최고가’
- 호르무즈 개방 기대..유가 급락, 국채금리도 하락
- 미국 6월 구인건수 소폭 감소..7일 고용보고서 공개

Summary

미국증시 상승

현지시각 8월 4일 화요일 미국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국제유가 하락, 그로 인한 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리스크-온(위험 선호) 분위기가 확산되며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71% 상승해 54,085.88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79% 상승한 7,736.52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2.59% 상승한 26,584.99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은 무려 3.32% 상승. 러셀2000 지수도 1.85% 상승 마감.

이날 S&P500지수는 7,700을, 다우지수는 54,000을 넘겨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 변동성 지수 VIX는 4.04% 상승.

(다우 +1.71%/ S&P500 +1.79%/ 나스닥 +2.59%/ 러셀2000 +1.85%)

호르무즈 다시 열릴까..국제유가 이틀새 10% 급락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통항이 막힌 글로벌 원유 주요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은 이날 시장 전반에 퍼진 Risk-On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해협을 개방하고 분쟁을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 어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그는 개방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이란의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전망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과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이는 이란 전쟁의 명분이었던 비핵화 문제를 ‘차후 논의’로 미뤄놓더라도 우선은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 통항-유가 안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전일 급락했던 국제유가 낙폭을 더 확대하는 원인이 됨. 이날 국제유가는 5% 대 하락을 기록했으며 전일 5% 내외 하락에 이어진 추가 하락으로 이틀간의 유가 낙폭은 10% 대에 진입. 국채금리 역시 유가 안정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안정,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이틀 연속 안정세를 보여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힘을 보탬.

미국 6월 구인건수 전달 대비 소폭 감소

미국 노동부는 6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공개. 6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36만건을 기록해 5월 대비 17만 8,000건 감소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15만 5,000건 증가. 시장 예상치 740만건을 소폭 하회했지만 대체로 부합했다는 평가. 세부적으로는 퇴직 비율이 전달 대비 0.1%p 하락했고 이직률은 2.0%, 해고율 1.0%로 전달과 유사. 채용은 5월 대비 26만 1천건 감소했고 채용율도 5월 대비 0.1%p 하락, 3.3%를 기록.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 노동 시장이 현재 보이는 '지나치지 않은' 둔화, 혹은 상대적 견조함은 연준의 금리 인상여지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국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주식시장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 오는 7일 미국 노동부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7월 비농업 고용이 6월에 비해 9만 1,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중.

특징종목

빅테크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 전반의 강력한 상승에 힘입어 S&P500 업종 기준으로는 정보 기술 섹터(+4.09%) 상승폭이 가장 컸고, 소재(+1.99%), 산업재(+1.80%), 금융(+0.88%) 업종 등이 상승률에서 그 뒤를 이음. 유틸리티(-0.60%), 에너지(-0.49%), 재량 소비재(-0.48%) 등의 하락 섹터도 낙폭은 제한적. 이날 종목 강세의 강도는 결국 실적이 좌우하는 모습.

기술주, 돌아온 투심

앞서 이어 발표된 빅테크 실적 호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아마존 실적 발표로 극대화된 가운데 캐터필라와 팔란티어 테크 등의 실적 역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 수익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힘을 실는 역할을 함.

캐터필러(+5.60%)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관련 중장비 수요 급증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AI 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 테크(+29.45%) 역시 AI 수요 확대에 따른 민간 부문 성장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 기업과 소비자단에서의 서비스 수요 역시 적지 않음을 보여줌. 즉 앞선 빅테크 실적에서 확인된 AI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와 관련 사업 수익성, 그리고 실제 인프라 투자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수요도 강력하다는 점을 고르게 확인했으며 이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킴. 앞서 레오폴드 아센브레너의 '시츠헤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청산되며 AI관련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시타델에 매각, AI 관련 업종군에 대한 기관의 디레버리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관련주 투자심리 개선의 원인으로 보임.

엔비디아(+2.56%), 애플(+1.96%), 마이크로소프트(+1.06%), 구글 알파벳(+1.11%), 테슬라(+1.64%) 등이 일제히 상승.

전분기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과 자본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을 확인시켜준 메타 플랫폼스(-0.39%)가 하락했고,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중심의 강력한 실적과 자본지출 확대 계획으로 급등한 아마존닷컴(-2.32%)도 전날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보유 중인 주식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에 하락. SEC에 제출된 공시에 따르면 베조스는 아마존 주식 1,500만주를 매각하기 위한 계획을 신고했으며 매각은 전날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뤄짐.

테슬라(+1.64%)는 지난달 기준 유럽 주요국 차량 등록 실적이 국가별로 엇갈림. 프랑스와 덴마크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큰 폭 감소를 기록. 대체로 유럽 전기차 시장 전반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테슬라가 구매 인센티브가 많은 영국 등의 국가에 판매 역량을 집중해 국가별 격차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해석.

이외 빅테크 관련 이슈로는 엔트로픽 자금 조달과 관련해 나온 구글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글(+1.11%)이 AI 반도체 텐서처리장치(TPU) 1,500억 달러 이상을 엔트로픽에 공급하기 위해 사상 최고의 인프라 금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는 구글과 반도체 위탁 설계 업체인 브로드컴(+6.61%), 사모대출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2.85%)와 블랙스톤(+1.86%), 그리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2.74%)와 다수의 가상화폐 채굴 업체가 참여했으며 거래량 규모는 약 2,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데이터센터 리스를 보증하고 브로드컴은 칩 구매를 약정하며 아폴로와 블랙스톤은 하드웨어를 매입, 엔트로픽에 리스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는 리스크를 대체로 분산하는 형태라는 이점을 가짐. 다만 궁극적으로는 엔트로픽이라는 단일 기업의 지급 능력에 2,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걸려 있는 것으로 집중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까지 나흘 연속 상승, 이날은 6.55% 상승하며 지난주 급락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개별 종목도 브로드컴(+6.6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62%), AMD(+7.00%), 인텔(+10.84%), 퀄컴(+7.32%), 마벨 테크놀로지(+12.81%), 샌디스크(+10.84%), 웨스턴 디지털(+4.05%), 램 리서치(+7.85%) 등 주요 기업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으며 SK하이닉스(+8.17%)에 대한 월가 분석 보고서가 줄이어 나오는 가운데 SK하이닉스 ADR도 강세.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날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술기업들의 견조한 주문과 메모리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슈퍼 사이클에 비견되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강력 매수 의견을 개진. 로젠블랫은 320달러, 캔터 피츠제럴드는 300달러 등으로 목표가를 제시한 바 있음.

차량용 반도체 등의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칩 제조사 온 세미컨덕터(+0.47%)가 AI 데이터센터용 전력관리 칩 수요 급증에 집중한 결과 전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 다만 이번 실적을 발판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했으며 AI 데이터센터가 전 사업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3.04%)도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 회사는 전분기 조정 EPS가 1.02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히 시장 예상 0.89달러를 상회함을 확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했으며 조정 영업이익률도 48.8%를 기록해 각각 시장 예상을 모두 상회. 현재 진행 중인 분기 매출 가이드선스와 EPS 가이드선스, 이익률 가이드선스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

다만 AMD(+7.00%)는 마감 이후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이 작지 않음. 전분기 실적은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7%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 역시 50% 급증했다고 밝혀 시장 기대를 상회. 현재 분기 매출 전망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 기대를 웃돈 실적에도 엔비디아보다 느린 속도의 성장성, 그에 반해 엔비디아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 주목하며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한편 AI 데이터 분석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29.45%)가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에 급등. AI 수요 확대에 따른 민간 부문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어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약 150% 급증함.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급등은 펄로 엘토 네트워크(+5.53%), 클라우드 스트라이크(+4.29%), 포티넷(+3.11%) 등의 사이버 보안주, 그리고 이외 서비스나우(+3.46%), 세일스 포스(+2.71%), 어도비(+2.45%) 등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주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이외 특징주: 실적이 주 재료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5.60%)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발전 설비와 건설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져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연간 매출 전망도 상향한 영향으로 강세. 다만 장 중 12%까지 확대됐던 오름폭은 대부분 반납.

SNS 플랫폼 스냅챗 모회사 스냅(+14.88%)은 전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함께 크게 개선된 수익성 지표를 공개. 현재 진행 분기 실적 전망도 기대 이상을 제시. 서스퀘한나는 좋은 실적에도 밸류가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이날 주가는 급등세를 유지한 채 마감.

스페이스X(+9.43%)는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 상장 이후 처음 발표한 분기 실적으로, 지난 2분기 스페이스X는 매출이 78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음. 다만 주당순손실 9센트를 기록했으며 우주 사업과 AI 사업에서 각각 5억 4,200만 달러, 12억 6,000만 달러 영업 손실을 기록. 다만 AI 부문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2분기 자본지출이 전분기 대비 80% 가량 급증했으며 이를 부담으로 반영해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대체로 하락권에 머무름. 한편 이날 스페이스X(+9.43%)는 엔비디아(+2.56%)와 우주 데이터센터용 '스타마인드' AI 위성 컴퓨팅 플랫폼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스페이스X 위성에 엔비디아의 루빈 GPU와 베라 CPU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힘. 엔비디아(+2.56%)는 시스코 시스템즈(+5.08%), 클라우드스트라이크(+4.29%)와 손잡고 AI 기반 사이버보안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

가구 전문 전자상거래업체 웨이페어(+29.97%) 역시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함께 급등.

비만치료제 위고비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5.97%)는 전분기 경구용 위고비 매출이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한데다 경쟁 심화, 메디케이드 비만치료제 보장 축소에 따른 미국 매출 감소 전망 등이 다소 실망스러운 연간 실적 가이드선과 맞물려 큰 폭 하락. 경쟁사 일라이 릴리(-0.51%)도 소폭 하락 마감. 일라이 릴리는 주식 분할 전망이 제기되기도 함.

머크(+0.18%)는 항암제 키트루다를 중심으로 한 분기 호실적과 연간 매출 상황에도 장 중 오름폭을 반납해 강보합 마감했으며 화이자(+1.52%) 역시 비 코로나 사업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상승에 그침. 시장 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한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소강상태를 보임.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이틀새 10% 급락

국제유가는 전일 5% 내외 하락한데 이어 이날도 5%대 하락으로 마감. 이틀간 1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함.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한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합의에 앞서 이르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미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전해져 유가 낙폭이 확대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69% 하락한 배럴당 75.77달러에 마감해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선을 하회하며 마감했고 브렌트유 10월물도 5.79% 하락한 배럴당 79.36달러에 마감.

국제유가와 국채금리의 동반 하락에 국제 금값은 1% 중반대 상승세로 온스당 4,150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은값 역시 4% 이상 상승, 온스당 60달러선을 넘김.

국채금리도 이틀째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전 만기물에서 이틀째 하락.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에 대한 합의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전일 하락 이후 초반 보험권에 머물러 있던 국채 금리에 하락 압력을 가함. 이 날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대체로 '견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완만한 노동시장의 둔화를 확인시켜준 점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 금리 하락 요인이 됨.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6bp 하락한 4.1917%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6.3bp 하락, 4.6126%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5.3bp 하락한 5.1743%를 기록. 2년물 금리는 이날 하락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4.2%선을 하회함.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중후반대로 전일 대비 낮춰 반영.

달러 가치 소폭 하락

미 달러화 가치는 엔화 가치가 5거래일만에 처음 약세 전환했지만 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등의 약세 요인이 더 크게 반영돼 소폭 하락.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전일 대비 0.004포인트 가량 하락해 99.893을 기록했으며 달러-엔 환율은 157.8엔선까지 회복.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 중 10원 이상의 큰 변동을 보인 끝에 2.70원 상승한 1,432.50원에 마감. 뉴욕 차액 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0.20원)를 고려하면 전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 2.40원 하락한 1,429.9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